

실종된 권장소비자가격... 못믿을 할인을

■ 권장소비자가 표시를 비교 현황

단위:개수, ()=표시율

조사대상 제품수	2013년 5월 표시제품수	2015년 4월 표시제품수
과자	122	94(77%)
라면	33	17(51.5%)
빙과류	31	1(3.2%)
합계	186	112(60.2%)

(자료:컨슈머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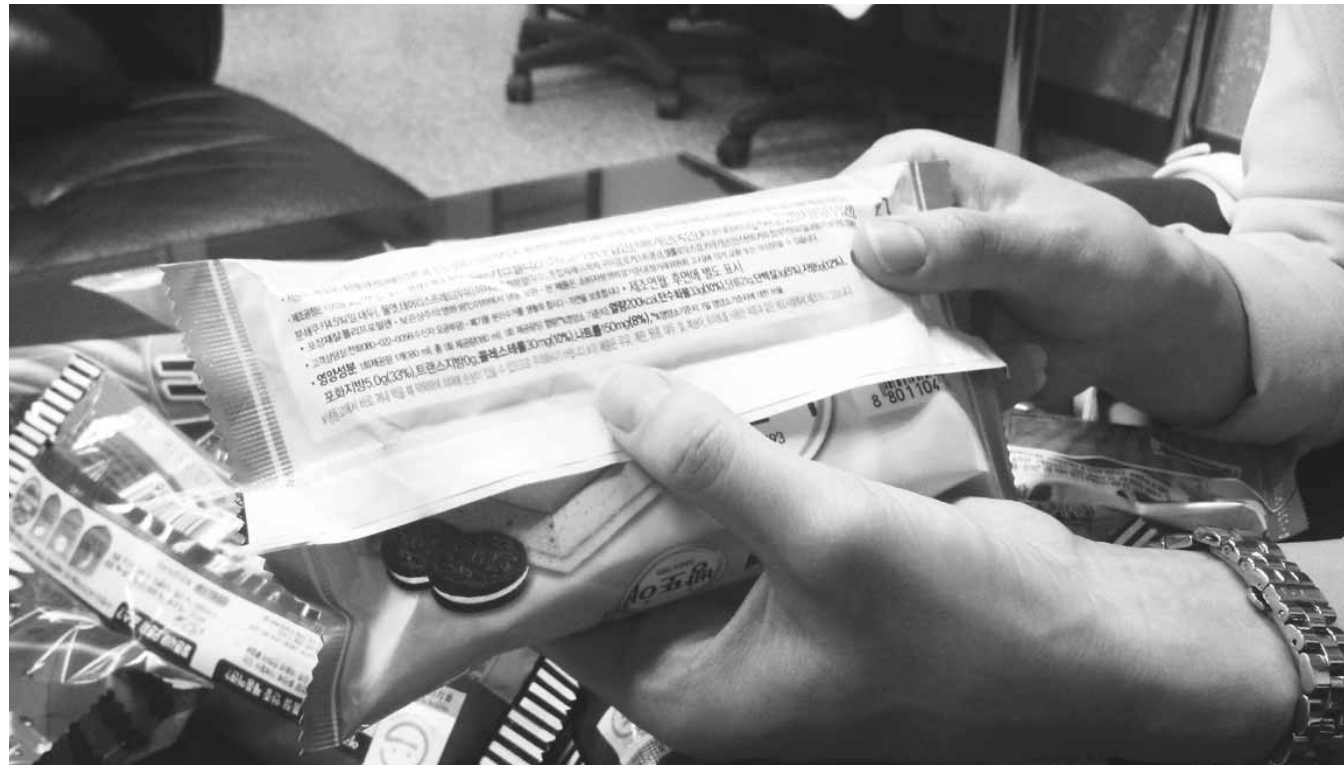
컨슈머리서치 186개 제품 조사 미표시율 39%→56%로 상승 정확한 가격 몰라 소비자 혼란

마트 등 수 많은 소매점이 빙과·과자·라면 등 판매대 앞에 '반값 할인' 등의 문구를 내걸고 할인행사를 하고 있지만, 원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식품 제조업체들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나 싸게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0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 업체 186개 품목의 과자·라면·아이스크림을 조사한 결과, 105개(56.5%)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었다.

2년전인 2013년 5월 같은 조사(동일 품목) 당시와 비교해 권장소비자가격 미표시율이 39.8%에서 56.5%로 오히려 16.7%포인트나 높아졌다.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의무는 지난 2010년 7월 최종 판매업자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할인율 뺑뺑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1년만인 2011년 7월 폐지됐고, 당시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주



마트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일부 제품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 표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 구매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부서(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을 자율적으로 다시 표기해 정부 물가 안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약 4년이 지금까지 권장소비자가격이 제대로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 종류별로는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이 2013년 77%에서 올해 53.3%로 23.5%포인트나 떨어졌고, 라면도 51.5%에서 45.5%로 6%포인트 하락했다.

과자 중에서는 해태제과 구운감자·홀란볼·오사즈, 크라운제과 버터와플·크라운산도·쿠쿠다스, 롯데제과 립파이·도리토스, 오리온 고소미·촉촉한초코칩·카메오 등 31개 품목의 가격 표시가 2년 사이 추가로 사라졌다.

라면의 경우 농심 육개장, 삼양식품 맛있는라면, 팔도 틈새라면 등 3개가 가격 표시를 지워버렸다. 해태제과·빙그레·롯데제과·롯데삼강 등의 아이스크림·빙과류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31개 품목 가운데 1개(해태 텀코)를 빼고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사실인지 파악할 길이 없는 소매점의 '반값 할인' 행사가 하드 등 빙과류에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조사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율을 살펴보면, 과자류에서는 농심이 100%(18개 중 18개)로 가장 높았고, 롯데제과(68.2%)·해태제과(50%)·오리온(40.7%)·크라운제과(37.5%)·빙그레(0%)·삼양식품(0%) 등이 뒤를 이었다. 라

면에서는 농심(76.9%)·삼양식품(57.1%)·팔도(20%)·오뚜기(0%) 순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에 적극적이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최근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는데, 권장소비자가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아예 가격 인상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대체 정확히 얼마나 오른 것인지도 짐작하기 어렵다"며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가 심하게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권장소비자가격을 식품업체의 자율에 맡겨 두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납 범벅 머리핀 등 28개 제품 리콜 명령

(기준치 503배 초과)

산자부 어린이용품 안전성조사

온라인 공개... 즉시 판매 차단

유아·아동복, 유모차 등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용 제품 40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드러난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유아복(2개), 아동복(13개), 어린이 머리장식(1개), 유아용 침대(1개), 어린이용 소변기(1개)·욕조(1개), 유모차(1개), 유아용삼륜차(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팅(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3개), 비비탄총(1개), 킥보드(1개), 장문블라인드(1개)다.

유아복은 1개 제품 지퍼 손잡이에서 인체의 신장고와 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납이 허용치를 5.5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다른 1개 제품은 의류안감의 수소는 농도(pH)가 기준치를 웃돌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복 1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접촉했을 때 피부염이나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다. 또 일부 아동복은 코드와 조임끈이 고정돼 있지 않아 놀이기구 등을 이용할 때 질식사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용 머리핀 1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를 최대 503배 초과했고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은 호흡기 장치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됐다.

어린이용 소변기 1개와 욕조 1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83배 웃돌았다. 유모차 1개, 유아용삼륜차 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팅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3개 제품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소비자가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수거, 교환,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 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 ☎ 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담배소비자협, 담뱃값 인상 소송 준비

제조사·유통업체 상대

"수천억 부당이익 반환해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KT & G 등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의 부당이익과 관련된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다

합회는 "담뱃값 인상 정책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만이 아닌 정부와 제조·유통업체의 싸고 치는 속임수였다"며 "소송은 실증사실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뱃세 인상이 결정된 직후 사재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에 천문학적 부당이득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는 사재기를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고스란히 담배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격을 결정하고 유통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수차례 담배제조사와 논의의 거쳐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 격인상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재부터 생산되는 담배갑 포장을 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것은 행정편의를 넘어 제조사의 입장을 배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담배가격을 인상하면서 정부가 담배판매량의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미 갑당 232원을 담배회사 등에 추가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의 부당이득까지 챙겼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불필요한 인상을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비오 협회 정책부장은 "부당이익 관련 여론을 의식한 제조사의 사회환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더이상 이용만 당할 수 없기에 회원을 중심으로 원고를 선정,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소비자원, 발신번호 조작 등 대출·도박 전화권유 판매 막는다

수신거부 시스템 '두넛콜' 구축 위법 업자 수사외·행정조치

한국소비자원이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착신을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휴대전화 변경, 대출, 도박 등을 권유하는 전화권유 판매 행위 근절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권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등 위법한 사업자에 대해 수사외, 행정조치 등 시장 개선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사 등록시스템'인 '두넛콜(www.donotcall.go.kr)'을 구축·운영 중이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두넛콜을 통해 수신거부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판매업체 미신고 시 최대 1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신거부 등록 소비자에게 판매 행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수신거부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도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등 범 위법 사업자가 많은 상황이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두넛콜에 '미등록업체 위반사례 제보방'을 신설한 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총 656건의 위반사례가 접수됐다. 하지만 발신번호 조작, 착신금지전화 사용, 업체명 미공개 등으로 해당 사업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총 656건의 중 통신수단법로는 전화가 388(59.1%)으로 가장 많았다. ARS를 통한 판매권유가 205건(31.3%), 스피 등 문

자메시지도 60건(9.1%)에 달했다. 판매 유형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가입권유 238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권유 218건(33.2%), 인터넷 가입권유 99건(15.0%)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발신번호 조작과 미신고 영업행위 등 위법한 판매업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 위법 사업자에 대해 두넛콜을 통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관심 끌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좋은 / 임대 걱정없음
룸12개, 올 대리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피라사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①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1) 엘리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 11억
- ③ 북구 두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1,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 ④ 수원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10-6832-9700
010-7384-7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광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 학원 앞 분식점 운영 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 ② 서구 상무지구 정면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광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 ⑤ 수원지구 모래미역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영 2억5천
매매가 3억5천
- ⑥ 수원지구 롯데마트면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0만
-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8만

010-6670-9800
010-7384-7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5층>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 ☑ 상무지구 중심 금융가 도로
현대자동차 뒷편
- ☑ 이면도로 코너
- ☑ 엘리베이터 완비, 무료주차4대
- ☑ 주변 주차시설 300대 완비됨

☐ 즉시입주가능,내부시설완비
☐ 학원적합, 보험사무실 적합

적극추천

**임대가 보3,000만
월 140만**

062-382-55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①서구 금호동 7층상가 (236㎡) 감평가 6억5천/최저가 2억9천
- ②북구 본촌동 민생빌딩 3층상가 (586㎡, 건 26.18㎡) 감평가 14억/최저가 9억6천
- ③북구 중흥동 씨나스전대/10층중 1층 (20,032㎡, 건 46.96㎡) 감평가 12억3천/최저가 9억3천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①광안구 소촌동 (토400㎡, 건294㎡)감평가13억7천/최저가13억(세차장,카센터)
- ②서구 양동 (180.5㎡, 건259.2㎡)감평가13억3천/최저가12억3천(2층건물/1층상,2층주택)
- ③목포 산정동 (토63.75㎡, 건199.2㎡) 감평가1억3천/최저가17천100만
- ④광안구 월계동 무인텔 (토1522.5㎡, 건1999.65㎡) 감평가134억/최저가34억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①담양 금성면(3층,펜션 (토30308㎡, 건2916㎡)감평가127억/최저가19억9천
- ②나주송월동(복합상가건물,예식장 (토8474㎡, 건11735㎡)감평가152억/최저가68억
- ③전주완산구호지동 (토502,453㎡, 건689,083㎡)감평가25억/최저가13억
- ④광안구중동 (토767㎡, 건3276.78㎡) 감평가126억/최저가121억

공장 / 주유소 / 모텔 / 특수물건

- ①광안구하남/공장 (토174.3㎡, 건2635.72㎡) 감평가14억/최저가6억5천
- ②북구 양산동/공장 (토3653㎡, 건4489.61㎡) 감평가136억/최저가 25억
- ③북구 월출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1458.9㎡) 감평가10억/최저가10억
- ④광안구 정목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1114.46㎡) 감평가136억/최저가129억
- ⑤광안구 월계동 무인텔 (토1522.5㎡, 건1999.65㎡) 감평가134억/최저가34억

바닷가 펜션 경매추천 물건

- ⑥경남 고성시회현면 (토13665㎡, 건267.16㎡) 감평가43억/최저가8억
(펜션,바다근처,전통캐주얼 시설물(음식수출건)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 직원구함 (남,여)
★ 경매 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10-7384-78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 ①경매 기본교육 +실전위주 교육
②VIP실전반(특수물건, 지분, 엔피엘(부실채권))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062-382-5500

경매 물건 추천

- 1 서구 금호동 7층상가(유용상가)
건 296㎡
감평가 6억6천 → 최저가 2억9천
(상권좋은, 시설좋은)
- 2 전남영광군 법성면 (3층/근린주택)
(토144평,건819평)
감평가 10억 → 최저가 4억8천
1층~2층상가 3층주택
(건물 바로앞 도로및 바다)

062-527-7600
010-7384-7800